

순창군 100원 버스 달린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개통식 성료... 군민, 실질적 경제 혜택 호응

순창군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개통식을 갖고 성공적 1,000원 버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순창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순창지역 관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의 단일 버스요금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질적 교통비 절감으로 군민 만족도가 높다. 실제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버스 요금은 10km 이내 기본 요금이 1,400원, 복층 추령 갈때까지 최대 버스요금 4,750원에 달해 군민들이 느끼는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집 군민이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장거리 이동자는 하루 버스로 왕복 시 최대 7,5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교통카드 활용으로 추가 50원의 할인 혜택도 받아 실제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버스를 이용해 피부로는 느끼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읍내어객들은 지난 10일부터 버스이용객 중 약 70%가 버스카드를 이용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참여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개통식도 진행됐다. 11일 전통시장내 버스주차장에서 진행된



순창군이 11일 오전 전통시장 내 버스주차장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개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번 개통식에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종섭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최영일 도의원, 임순여객 영상열 전무, 순창전통시장 내병호 상인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한 설명과 개통 케이크 커팅, 버스탑승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면서 "카드이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21개소를 확보해 단일요금 시행에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판매·충전소 21개소는 순창읍 CU, GS 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순창시장 현대천막지점, 인계면 농협하나로마트, 고기사랑 동계편의점, 적성면 고원슈퍼, 유등면 농협하나로마트, 풍산면 농협하나로마트, 금과면 중앙슈퍼, 방축금과정류소, 팔덕면 농협하나로마트, 강천산 CU, 복흥면 서울마트, 쌍치면 우정 하이퍼, 구림면 우리슈퍼 등이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인구유출 방지 안간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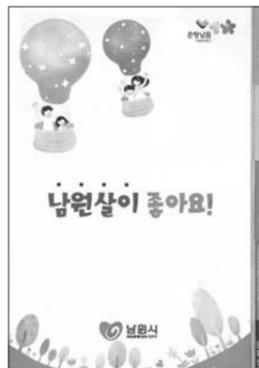
인구정책 안내 책자 배부... 전입 정착 유도

남원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전입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남원시민과 출향인, 전입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생활정보를 결혼·출산, 교육, 귀농·귀촌, 기업·취업, 문화, 교통 등 6개 분야로 묶어 제시했다.

책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전입정착 이사비 지원,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귀농, 귀촌 지원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내용 뿐 아니라 대중교통 시간표, 관광안내와 같은 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남원시민과 귀



농·귀촌 등 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읍면동 및 유관기관, 서울사무소 등에 4,000부를 배포해 인구유출 방지와 안정적 전입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강천산 공원, 설 연휴 무료 개방

순창군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을 위해 설 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강천산 군립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군 산립공원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강천산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9일부터 14일까지 강천산관리사무소, 상가,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 및 주요 등산로 정비를 진행해 설 연휴기간 공원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순창의 자랑 강천산을 부담 없이 찾게 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강천산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장례차량 에스코트 시행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10일 경찰이 군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차량 에스코트를 시행하였다.

장례차량 에스코트는 경찰 순찰차가 운구행렬 선두에 배치되어 진행차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순창군 경계 범위 내 장까지 에스코트를 하는 것이다. 에스코트 대상차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등으로 고인 및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원활한 교통 소통 통해 안전하게 장례를 마칠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은 "장례차량 에스코트 서비스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면 에스코트 서비스는 공휴일을 포함 연중 시행 예정이며, 대상지는 경찰서 교통관리계 또는 파출소로 전화나 방문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 등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내년도 국비확보 발빠른 행보 눈길

심민 군수, 국회 방문·3대 중점사업 설명 등 최선

심 민 임실군수(사진)가 급박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해 4000억원의 역대 최대예산을 일궈낸 심 군수는 그 여세를 몰아 대형사업의 국가예산을 따내는 데 열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대 군수들이 모두 중도낙마한 아픔이 있는 임실군의 민선 6기를 안정되게 마무리 중인 심 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3대 중점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12일 심 군수는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용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과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타운 조성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2019년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 사업의 국가예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심 군수는 "2019년 정부예산은 부처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입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지역현안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실군민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용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의 교통환경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50년만에 군민 숙원사업의 첫 물꼬를 트게 됐다"며 "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또한 "지난 해 임실군 전체예산이 4000억원을 넘어섰는데, 국가예산만 1000억원 이상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들 현안사업들의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5000억원대 예산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은 한편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21건을 발굴, 도 및 중앙부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중 추진결과 보고회를 거쳐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중점관리 사업을 확정해 예산반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 흠어머니산성 관광벨트 조성 본격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순창군이 지역의 대표적 산성 유적지인 흠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흠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순창의 새로운 역사·문화 탐방 관광자원으로 본격 개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청사진을 공유했다.

흠어머니산성(일명 대모산성, 이하 '산성')은 7세기에 처음 축성되어 백제시대에는 행정치소로, 조선시대까지 평시에 군창(軍倉)으로, 전시엔 전투 및 피난시설로 활용되었던 순창을 대표하는 산성 유적이다.

군은 산성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증하고, 관광벨트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용역기관인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순창군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연구원인 심정민 교수의 최종 보고에 이어 질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심정민 교수는 사업구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흠어머니산성과 대모암이 위치한 역사문화권역, 단군성전과 순창향교, 육천사마재 등이 자리 잡은 인성문화 체험권역, 그리고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발효소스마을, 승마체험장 등이 인접한 장류문화 체험권역으로 분류하여 2027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총 29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보고했다.

우선 관광벨트 기반 조성사업 부문은 산성 발굴조사 및 유적 복원, 역사문화 학술대회 개최, 산성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 및 전시홍보관 건립, 해설사 양성 및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통일화 사업, 홍보 및 운송 전용버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광자원화 사업 부문은 힐링체험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 경관 및 조경 정비, 향교와 고추장마을 연계 문화역사기행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